

불자들은 또 '통일의 길이 험난해도 화합하고 협력해 가이 통일 길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펼쳐진 불교행사를 사진으로 보며 우리들의 서원을 다시 되새겨본다. '일체가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하겠다는 간절한 기원을 접수하여 주옵소서.'

사진으로 보는 연등축제

온갖 괴로움 건져주시네"

남은 자해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뱃다차리타)라 부처님 오심을 찬탄.

올해 연등법회는 아기부처님 이문 및 관불의식을 추가해 행사를 여법하게 정연했다. 관불의식에는 정대 조계종총무원장을 비롯 13개 종단 총무원장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손현수 전국산악인불자연합회장, 박준영 청와대불자회장이 신도들을 대표해 차례로 참여했다.

쓰레기 없이 치른 연등법회

연등법회가 열린 동대문운동장 관중석 스탠드에서는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노보살과 여학생이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위 주위사람들을 잠시 놀라게 했다. 이를 본 불자들도 함께 쓰레기 줍기에 동참했고, 연등법회가 끝나자 조계사 학생회원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빈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말끔하게 청소해 불자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시민들에게 등 2천개 보시

연등법회는 재동행렬을 하며 연등에 나온 시민들에게 각종 등을 보시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 신도들은 한달 전부터 재동행렬용 연등 2천개를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 이 등에는 재미있는 동자승의 모습을 비롯해 연꽃모양, 만(卍)자 형상 등의 불교 문양을 등에 그려넣었다. 또 T자 모양의 등걸이를 사용. 2개씩 등을 달아 어느 행렬보다 등이 많이 걸리를 환하게 밝혔다.

젊은 불자들 사형서원 회향

연등행렬이 우정국로에 들어서면서 연등축제가 막바지에 이르자 많은 불자들이 아쉬운 듯 행렬을 빠져나와 우왕좌왕했지만, 숙명여대 불교학생회원은 동그랗게 둘러서서 사형서원을 하고 회향. 초발심을 지키려는 젊은 불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담갈공원 앞 다채로운 공연

연등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한마음선원은 담갈공원 앞에서 합창 수화 무용 댄스 연주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한마음선원 청소년학생회가 주축이 돼 마련한 공연인 만큼 학생들의 발달함이 돋보였다. 공연장 옆에는 열풍 페인팅과 매듭 만들기, 합등 만들기 체험마당도 마련하여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연등축제 남북 함께 했으면"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화합한마당에는 밤 11시 가까운 늦은 시간임에도 13개 종단 총무원장과 5천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발원지 소지(鏡紙)의식, 풍등(風燈) 날리기에 이어 오색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고 꽃비가 날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함께 감강수레를 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석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남과 북의 불자들이 함께 연등축제를 봉행하는 그 날이 어서 오기를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불교특별취재단**)



연꽃잎등 행진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들이 창작등 경연대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꽃잎등을 높이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등만드는 외국인 연등만들기는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외국인 연등만들기 대회에는 1백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DDR

대구 불교 위원회는 7일 두류공원에서 내박자 가족 DDR 볼내기 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혜와 자비로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28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연등축제 불교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지혜와 자비로 부산과 함께'라는 2천여개의 촛불을 밝혀 서원과 바람을 담아 내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인권 문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주관으로 7일 종로에서 열린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 비전향장기수 30명 등 500여 시민이 함께 했다.



부처님 협동화 그리기 대구 남구사회복지원은 7일 두류공원에서 가족·친구가 함께하는 '이기 부처님 협동화 그리기'를 개최했다.



"경사로다" "은누리의 경사로다. 사멸이라 초과일 불축하세." 등 대문운동장에서 연등법회에 앞서 진행된 어울림마당에 참여한 불자들이 두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대인불교조계종 불자약사 보리회

매월 무료부약 1000명

- ◆ 장 소 : 탑골공원
- ◆ 일 시 :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30~4시
- ◆ 문 의 : (02)959-3298

후원회 자동이체 환영합니다.

- 서울은행 16704-0596413
- 외환은행 131-19-42978-6 예금주: 유효순
- 주척은행 492325-01-015656

귀의 심보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속에

피도 치는날, 미람부는 날이 어디 한 두번이겠습니까? 그런날 조용히 닦을 내리시고 오늘날 잠시 멈추시고, 낮은 곳에 들어주시지요.

그동안 저의 불자 약사보리회에 상인과 관심에 힘입어 5월 11일 현재 2만 여명 상부에 무료부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회상담에는 김형주 법무관님께서 애써주시고, 종교 상담에는 대인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러분의 일일구좌, 또는 각 제약회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의가 주도하는 일들이 부처님께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으며 맑고 맑은 향기로 자비에 등 돌 뛰하시고 마음 뛰어 소원 이루소서.

나무사이본사 식가모니불

불자 약사보리회 일동 회장 나 한정자 합장

아... 왔! 저 깊은 곳 내 존재의 근원

禪 공학, 아바타 코스에 초대합니다.

이번 코스가 열릴 봉인사 한길정진원은 현대적 숙박시설을 갖춘 자연경관이 뛰어난 수련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의식계발 프로그램 아바타로 뜻대로의 삶을 창조하십시오.

< 체험단편 >

- 지금부터 내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어 기쁘다.(불교학 박사과정 수료)
- 내가 나이던가, 내가 나이던가? 사라진 몸과 보니, 내 세상에 매어놓은 잠이 장난이었던 것을... (제가부처)
- 건강과 행복을 저절로 얻을 수 있다... 살라만상이 모두 내 안에 만든 내 밖이었다. (약국경일)
- 내 삶의 창조자로서 모두를 포용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창조와 경험, 그것은 내 삶의 장과 방패 (기초코린타 운영)
- 뜻대로 사는 길이 열렸다. 모두와 함께하는 이 기쁨, 환희(주부)
- 원치 않는 삶 끈, 원하는 삶 시작(연문인)

- ▶ 주 최 : 의식계발 연구소 서울 아바타 센터
- ▶ 홈페이지 : www.myhome.netsgo.com/cdikr
- ▶ e-mail : cdikr@netsgo.com
- ▶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경기도 남양주시 전전면 송릉리)
- ▶ 기 간 : 2000년 5월 24일 오전11시 - 31일 오후6시 (7박 8일)
- ▶ 인 원 : 20명 이내
- ▶ 코스지도 : 이상구, 오진은, 이재호 (아바타 마스터)
- ▶ 참가비 : 170만원 (숙식제공)
 - * 아바타코스 복습자는 40만원(숙식포함)
 - * 서울 경기지역 참가자는 분근식 참가도 가능합니다.
- ▶ 신 청 : 의식계발 연구소 서울아바타센터 (02)572-1673
- ▶ 봉인사 한길정진원 (0346)574-5585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연법 (연꽃씨) 을 드셔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연법은 풍부한 녹말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아미노산 조성 분인 리신이 상당량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질을 가지고 있다. 인디스 문명 유적에서 연꽃 장식이 출토되었고, 불교전래 이전의 고대인 도에서도 이미 다산(多産)이나 생명(生命)연장(延長)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蓮)을 극락정토(極樂淨土)라 하는 견해도 있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味甘無毒養氣力 除百疾補五臟 止渴益神安心 多食令人喜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기력을 돕는다 인체의 온갖 병을 낮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오장을 보호하고 강증을 멈추게 한다 정신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補中, 益氣, 止血, 治痢 등의 효과가 있다.	기운을 더해주고 몸을 보신해주고 지혈작용과 질병을 다스리는 효험이 있다 - 삼성출판사 새 우리말 큰사전 중에서 -

1kg포장속에는 알곡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속심과 껍질을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입니다. 알곡이 피손되지 않은 상태가 1500여개가 들어있으며 중분히 물에 불리신후 사질이나 가정에서 밥지을 때 콩가루로 넣어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품안내	3Kg	36,000원	각각 포장되어 판매
	5Kg	55,000원	
	10Kg	105,000원	

예금주 : 기업은행 (377-009547-04-018) 인창물산 농협 (217028-52-013565) 여진구

인창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73-25
(0344)907-2567, 906-5691-2